

이 대통령 현미경 질타...광주·전남 관가·기업 '초긴장'

소비쿠폰·제철소 사고 등 안전·인권경시 잇단 경고 지자체 등 즉각 시정 '각성'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인권 경시 사례에 대해 날선 질타를 거듭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 현장 등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자체 등은 제기된 문제들을 즉각 시정하는 한편 새 정부 출범 초기 소위 '시범 케이스'로 적히는 것을 우려하며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27일 광주·전남 지자체 등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추락 사고, 광주 소비쿠폰 현물 카드 색상 차별, 나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등 사례가 잇따라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통해 어김없이 안전·인권 경시 풍조에 경고를 날리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지시사항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5일 지게차에 몸이 묶여 들리는 수모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 위로했다.

김 지사는 피해 근로자를 만난 자리에서 "먼 타국에서 와 낮은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과 같은 일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과 현장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로컬콘텐츠 페스타 참석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5일~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로컬콘텐츠 페스타'에 참석, 행사장을 돌러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의 인권 감수성과 보호 체계를 되돌아 보겠다"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일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수준별로 달리했던 소비쿠폰 현물 카드 색상을 밤색 스티커 부착 작업 끝에 빨간색으로 통일했다. 인권 행정평가단 구성, 인권교육 강화 등 대책도 발표했다.

강기정 시장은 "다른 도시가 모두 그랬어도 광주만큼은 아니었어야 하는데 생각할수록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24일 고용노동청과 경찰의 동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최근 극한 호우를 두고 이 대통령이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하자 현장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다.

지자체장들은 앞다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사진을 올리며 현장 점검 모습을 인증했고, 통상 경찰·소방에 의존했던 실종자 수색에도 행정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단체장들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의식하는 등 현장 행보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 사회에서는 느슨한 업무 관행을 조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쿠폰 차별 논란으로 흥역을 치른 광주 한 공직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편의주의나

기계적 업무처리 관행으로 인권 등 요소를 두루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실히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 한 공직자는 "다른 지역 사례를 반면교사로 우리 행정의 문제를 돌아보고, 시범 케이스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세밀한 지적이 효과를 내는 것 같다"며 "시민 눈높이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 가끔 모범 사례도 발굴해 전파하고 칭찬·격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진호건 도의원 "상습 침수지역 과감한 재건축"

배수로 기준 상향 등 촉구

역대급 폭우 등 반복되는 재난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과감한 재건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최근 열린 집중호우 피해상황 보고회에서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저지대 양수장·배수장 등은 단순 점검을 넘은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별 침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있는 만큼 시군 단위로 한 곳씩이라도 우선 선정해 구조적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배수로로 물이 나가고 하천



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결국 침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전남도)농정국 소관은 아니더라도 도 차원에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하천 준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진 의원은 또 "기후위기 시대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현재 배수로의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 배수로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인 방향도 함께 마련해 달라"며 단기적 복구계획을 넘어선 중장기 재해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서대현 도의원 "여수산단 환경참사 6년, 솜방망이 처벌"

207곳 적발 기소 34건 불교 오염 실태조사 착수도 못해

지난 2019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최근 열린 2025년 상반기 도정질문에서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과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수사 의뢰한 41개 사업장 가운데 기소는 34건, 징역형은 고작 7건에 불과했다"며 "측정



값 조작으로 207곳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당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23차 회의 끝에 확정된 9개 권고안의 중 가장 중요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주민 건강영향조사 등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실태조사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수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특히 "여수 삼일동은 2019년 2,574명이던 인구가 2025년 6월 현재 1,976명

으로 줄었다"며 "조작된 측정값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주민이 온전히 떠안고 있는데, 행정은 아무런 보상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주민들은 전라남도에서 먼저 피해를 인정하고 선지급 보상을 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도는 절차보다 책임이 먼저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여수시와 같이 논의하고 종합적인 검증과 연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경영자총협회 공고

- 2025 고용노동부 직장적응 지원사업 -

『2025년 청년친화 조직문화 개선 및 직장 적응 온보딩 프로그램』참여기업 신청 공고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 청년 친화 직장 적응 지원으로 신입사원의 직장 적응 가치를 높여 장기근속과 기업 성장력을 고취하고자 「2025년 청년친화 조직문화 개선 및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8.

광주경영자총협회장

1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5년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참여기업 신청
- 사업목적
 - CEO, 중간관리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으로 공감대 향상
 - 청년 신입직원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조직 적응 조기안착으로 중도 이탈 방지 및 장기근속 도모
-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 운영기관 : 광주경영자총협회
- 사업절차
 - 광주경영자총협회 → 사업공고
 - 광주경영자총협회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참여기업 선정
 - 광주경영자총협회 → 온보딩 프로그램 설계
 - 참여기업 → 광주경영자총협회 → 우수사례 참여 후기 공모
 - 광주경영자총협회 → 광주경영자총협회 →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등)

2 프로그램(안)

* 교육프로그램(안)은 신청기업별 맞춤형 설계로 하단 프로그램(안) 참고예시

청년친화 조직문화 개선	오픈	관리자의 격을 올리는 전략적 온보딩 프로그램 특강(4H)
	리더십	- 리더의 자기혁신 (차별화전략이 만드는 인적환경설정)(4H) - 중간 관리자 360도 리더십 (리더십에 대한 7가지 오해, 리더가 관리해야 할 7가지 요소)(4H)
(신입직원) 직장적응 온보딩	관리	팀원이 공감하는 성과관리(4H)
	오픈	골든 서클 성장 마인드셋 리텐션 워크숍(4H) - 업무효율을 높이는 시간관리기법(4H) - 회사와 함께 성장하라 (전략적 셀프 리더십 역량강화 특강)(4H) - 신규 입사자가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이해(4H) - 모의경쟁게임을 통한 조직 이해하기(4H)

3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대상
 - 기업조건 : 사업자등록 기준 광주 소재 자사, 공장 등 포함
 - (산단단지 내) 일반기업
 - (산단단지 외) 우선지원대상기업
 - *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 확인으로도 대체 가능
 - 참여자 조건
 - (관 리 자) 교육 참여 근로자 근무기간 무관
 - (신입직원) 교육 참여 근로자 입사 3년 내의(2022년 상반기 이후-)이며, 정년충(만 15세 - 39세 해당)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등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화 : 고용보험-보험가입정보조회-사업장총괄카드 내 '대규모기업(비해당)' 확인

- 신청기간 : 2025. 7. 28(월) ~ 8. 29.(금)
- * 참여기업 접수순으로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일정(9-12월)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관리자, 신입직원 프로그램 중 택1 혹은 2가지 다 선택 가능
 - 불입 (서식)신청서 작성 및 PDF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4 문의 및 접수처

- 신청양식 :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jef.or.kr)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25. 7. 28 ~ 8. 29 (5주간)
- 신청서류 : (서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명부 각 1부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파일 이메일 제출(gjef_gjef@naver.com) 및 접수 확인(전화)
- 문 의 처 : 광주경영자총협회 일자리사업부 (전화) 062-654-3427